

공공도서관은 자료중심이 되어야

공공도서관은 자료중심의 도서관이 되어 정보자료제공에 충실해야 한다.

평생학습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공

공도서관은 다양한 평생학습강좌와 문화행사 등 지역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자료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새벽에 요가를 하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러 오는 곳이 되었다. 주말에는 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려 멀리에서 오고 도서관에서 전시회를 열며 꿈을 키워가고 있다. 조용히 독서하던 정적인 장소에서 활기와 생동감 넘치는 동적인 장소로 공공도서관이 변화하고 있다.



글 | 양 종 만
한국도서관협회 부회장
서울특별시립정독도서관 관장
yjm@sen.go.kr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 이용자 설문조사를 보면 공공도서관이용의 가장 큰 목적은 자료이용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 1인당 대출권수는 1.9권(2008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으로 미국 7.4권(2007년)에 비하여 월등히 낮고 우리나라 도서관장서 수는 국민 1인당 1.2권으로 미국 2.8권, 일본 2.9권 보다 부족하다. 여전히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정보제공 기능을 위한 장서확충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편이며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작은 규모의 공공도서관이 설립되어 공공도서관 수가 많아지고 다양한 주민참여 문화행사를 통하여 도서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장서확충을 통한 독서문화를 독려하는 공공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기기의 보급으로 전자책을 손쉽게 이용하고 인터넷검색을 통한 자료검색이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다시 공공도서관의 자료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서확충이라는 기본에 충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도 별도로 장서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여 장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7월 6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서관법」은 국공립 도서관에서 기부 금품을 접수할 때 별도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접수할 수 있도록 기부접수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동안 국공립 도서관에 법적 제약으로 자료 기증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부절차 간소화로 자료 기증에 대한 문이 넓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에서는 장서확충을 위한 기부 문화 확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자료중심의 공공도서관으로 우뚝 서자. 그리고 그 중심에 사서가 있도록 하자 ”

둘째, 다른 평생학습기관과 차별화하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인문학강좌나 저자와의 만남, 한책읽기, 책잔치 등 책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기획, 운영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독서는 개개인의 내면에서 살아 숨쉬는 지극히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체험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거대한 변화를 위한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시작이다.”라는 말처럼 독서는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으며 사회를, 문화를, 역사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대한 힘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자료와 독서를 통한 자기주도적인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며 이용자 수요에 맞추어 계층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독서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공도서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가치를 존중하여 함께 살기 위한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서관이 지역커뮤니티의 중심점이 되어야 한다. 독서 커뮤니티 활동은 단편적 개인적인 독서 및 학습활동에 대해 타인과 공유하면서 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확대 재생산적 활동을 통해 자생적으로 성장하게 한다. 또한 21세기의 중요한 열쇠인 함께 살기 위한 삶으로써 조화롭게 공존하며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공공도서관에서 독서토론, 독서동아리,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주고 있는 현상은 매우 바람직하다. 개인적인 독서체험에 국한하지 않고 공동의 목적을 경험하면서 지역의 독서 커뮤니티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공공도서관이 되자.

넷째, 공공도서관 사서에게 다양한 정보자료는 가장 편리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을 먼저 알고, 잘 아는 사서 즉 책을 읽고 서평 쓰는 사서가 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 사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보자료와 독서전문가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도구로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사서는 독서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도서관의 중심에 서서 독서를 통한 시민의 자발적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이끌어야 한다.

이제 한국도서관협회가 앞장서서 도서관과 사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제25대 회장이 취임하고 임원단이 구성되어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가 할 일은 한국도서관협회의 회원을 확대하여 외연을 넓히는 일이다. 모든 사서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집행부는 더 한층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과 사서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권리를 드넓여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이 기본을 단단히 하고 사서의 권리를 공고히 함으로써 독서문화의 중심점이 되기를 바란다.